

‘피겨 퀸’ 김연아 “대회 3연패 준비 됐어요”



매년 마감생을 시켰던 부상도 없다. 시차에 대한 부담도 잊은 지 오래다. 이제 피겨 여자 싱글 사상 두 번째로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의 영광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

김연아(18·군포 수리고·사진)는 지난 9일 밤 고양시 덕양여울 립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2008~2009 SBS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을 대비한 첫 훈련을 치렀다.

실제 경기가 치러질 빙판이 아닌 지하 링크여서 빙질 점점은 못 했지만 집중력을 높이려고 취재진의 접근도 막고 비공개 연습으로 대회 3연패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연아는 12일 오후 8시15분부터 시작하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13일 오후 8시 5분부터 예정된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사상 두 번째 3연패 달성에 도전한다.

김연아의 기록 없는 활약은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불꽃 대결’을 펼칠 5명의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다.

김연아는 지난 10월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팅 아메리카’에서 총점 193.45점으로 가볍게 우승을 차지했다.

그랑프리 파이널 대비 막판 컨디션 점검
12일 여자 싱글 13일 프리스케이팅 출전

김연아의 기록은 아직 이번 시즌 여자 싱글 최고점으로 남아 있다. 그랑프리 3차 대회인 ‘컵 오브 차이나’에서도 191.75점을 따냈고, 시즌 두 차례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점수 편차가 1.70점일 정도로 흔들림 없는 연기를 펼쳤다.

1차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69.50점으로 자신의 역대 최고 기록인 71.95점에 근접했던 김연아는 3차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는 황당한 ‘통 에지’(점프 도약시 잘못된 날 사용) 관점으로 63.45점에 그쳤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만회하면서 시즌 베스트 점수를 챙길 수 있었다.

이에 맞서는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의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다. 그에게 시즌 첫 대회였던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최악의 점프 난조로 167.59점(쇼트 58.12점+프리 109.47점)에 머물렀지만 6차 대회였던 ‘NHK 트로피’에서 191.13점(쇼트 64.64점+프리 126.49점)으로 무려 23.54점이나 끌어올리는 뛰어난 연기로 그랑프리 파이널 티켓을 손에 쥐었다.

그나마 조애니 로세트(캐나다)가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188.89점으로 자신의 시즌 베스트 기록을 세워 김연아-아사다로 압축된 우승 경쟁 구도에 복병으로 떠올랐지만 유카리 나카노(일본·172.53점)와 안도 마키(일본·170.89점),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170.72점)의 이번 시즌 최고점은 김연아와 아사다에 크게 밀리고 있다. 지난 8일 입국한 김연아는 “두 차례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우승해서 컨디션이 아주 좋다.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실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실수를 최소화해 이번 시즌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연합뉴스

日 야쿠르트 임창용

“내년 시즌 30S 이상 거두겠다”



포크볼 집중 연마... ‘언 히터블 신화’ 도전

“꿈의 무대’ WBC 출전해 최선 다하고 싶다”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마무리 투수 임창용(32·광주 진흥고 출신)이 포크볼로 2년 연속 성공에 도전한다.

임창용은 10일 프로야구 출신 원로 야구인들의 모임 일구회가 준 특별상을 받은 뒤 “올해 변화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내년에는 포크볼로 30세이브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올해 최고시속 158km짜리 뱀직구를 앞세워 1승5패33세이브, 평균자책점 3.00의 수준급 성적을 남겼지만 떨어지는 변화구만 보태면 더 위력적인 투수가 되리라는 평을 들었다.

내년 3월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표팀 마무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임창

용은 “WBC 참가에 맞춰 예년보다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 1월부터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2년 연속 친정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과 함께 전지훈련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경제 한파로 삼성이 전후출발을 1월 말로 늦추면서 스케줄 재조정에 들어갔다. 그는 한술밥을 먹게 된 좌투수 이혜천(29)과 합동 훈련을 계획 중이다.

임창용은 “이혜천과 동계훈련 계획을 얘기해야겠지만 일단 나라도 혼자 1월 초 공에 들어가 20일 이상 훈련해야 할 것 같다. 아직 소속팀과 WBC 참가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발탁되면 WBC에 나갈 수 있도록 2월 스프링캠프에서 팀 관계자를 잘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년 전 초대 WBC 때는 오른쪽

팔꿈치 수술 후 쉬던 기간이라 나가지 못했다.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되는데 WBC 출전이 마지막이라고 본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꿈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이어 “2003년 삿포로 아시아선수권대회 때 볼카운트 2-0에서 체인지업을 맞아 2루타를 내줬던 일본인 타자 후쿠노메 고스케(시카고 컵스)와 꼭 맞붙고 싶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전의를 가다듬었다.

한편 임창용은 후배 이혜천이 일본에서 최소 10승 이상을 거둘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이혜천의 볼도 빠르고 폼도 특이해 일본 타자들이 많이 겁을 먹을 것 같다. 올해는 나 혼자 지냈지만 내년에는 혜천이와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강타자들과 승부는 재미있지만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 등 한국 타자와 대결은 솔직히 좀 부담된다. 경기에서 자주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원했다. /연합뉴스

한국 주니어 탁구 2년 연속 준우승

18세 이하 남자 탁구 유망주들이 제6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2년 연속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다.

한국은 1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부전 중원과 트리오’ 이상수와 서현덕, 정영식을 내세웠지만 중국에 0-3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미국 대회 결승에서 2-3으로 아깝게 저 준우승한 데 이어 2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중국에 막혔다. 앞서 여자도 준결승에서 중국에 0-3으로 탈미를 잡혀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실력을 노렸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무너졌다. 첫 단식에 나선 이상수는 안안을 맞아 1, 2세트를 모두 11-8로 따내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3, 4세트를 잃었고 최종 5세트마저 8-11로 넘겨줘 결국 2-3으로 역전패했다. 기선 제압에 실패한 한국은 서현덕이 반전을 노렸지만 광보와 듀스 접전을 펼친 1세트를 15-13으로 이기고도 2, 3, 4세트를 내리 빼앗겨 1-3으로 졌다. 또 믿었던 올해 아시아주니어 대회 2관왕 정영식마저 청정치에게 1-3으로 패해 한국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윤정수 천하장사씨름 8강행

청룡급 최강자 윤정수(수원시청)가 2008 천하장사씨름대회 8강에 무난히 진출했다.

16강 시드를 받은 윤정수는 10일 경남 남해체육관에서 열린 천하장사대회 예선에서 두 체급 아래인 거상급 장정일(현대삼호중공업)을 2-0으로 물리쳤다. 윤정수는 13일 천하장사결정 8강전에서 이주웅(수원시청)과 맞붙는다.

이밖에 8강 대진은 백성욱(용인백옥쌀)-노진성(울산동구청), 유승록(용인백옥쌀)-우형원(용인백옥쌀), 장성복(동작구청)-최병두(현대삼호중공업)로 짜여졌다. /연합뉴스



데라크루즈 ‘트리플 크라운’ 1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KT&G 경기에서 GS칼텍스 데라크루즈가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GS칼텍스가 3-1로 승리했다. 특히 데라크루즈는 후위공격과 서브, 블로킹 등에서 각 3점 이상을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은’ 왕기춘 日 가노컵 유도대회 참가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0·용인대)이 올림픽 후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 출전한다. 12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가노컵 대회가 그 무대로 왕기춘은 10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왕기춘은 “(올림픽 후) 첫 대회인데 걱정이 많이 된다. 운동은 정말 열심히 했다. 갈비뼈 부상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쉬고 계속 운동만 했기 때문에 몸 상태는 많이 올라왔지만 각 경기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유도의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라고 자책 진단을 내린 왕기춘은 “올림픽 나가기 전하고 긴장되는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설명했다. 몸무게도 75kg 정도로 감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올림픽 은메달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약간 남은 듯했다. “(이)원희 형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뒤 ‘자기 목표를 잃었다’고 말한 뜻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죽도록 훈련을 한 뒤 다시 얼마 쉬지 못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며 “여러 생각 하는 것보다 오로지 운동만 열심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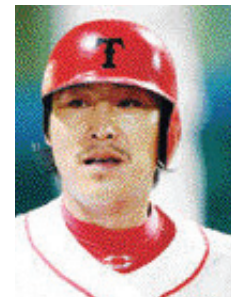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3일간 도쿄 메트로 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리며 스포츠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KBS N스포츠가 13일부터 이틀간 녹화 중계한다. /연합뉴스

이재주 50% 오른 1억2천만원에 ‘도장’

김선빈 75% 인상...3천5백만원 KIA, 20명과 연봉 재계약 끝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봉 재계약 대상자 53명 중 이재주(사진)를 비롯한 20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KIA는 10일 올 시즌 팀내 최고 홈런(12개)을 기록한 이재주와 올해보다(8천만원) 50% 인상된 1억2천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발데스의 퇴출로 데뷔 첫해 주전 유격수로 활약한 김선빈도 2천만원에서 75% 인상



된 3천5백만원에 도장을 찍었고,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5승을 거둔 임준혁도 2천만원에서 90% 인상된 3천8백만원에 연봉계약을 마쳤다.

반면 강철민(투수)·송산(포수)·채종범(외야수)은 각각 5천 3백만원에서 4천만원,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7천2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삭감된 연봉에 재계약을 맺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소렌스탐 오늘 고별 경기

‘영원한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38·스웨덴)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골프 인생을 마감한다.

지난 5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소렌스탐은 마지막 대회를 11일(한국시간) 밤 에미리트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두바이 레이디스마스터스로 정하고 현지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소렌스탐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희비가 교차한다. 즐겁게 경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두산 김경문 감독 공로패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사상 첫 야구 금메달 사냥을 지휘한 김경문 두산 베어스 감독이 야구계 선구배들이 주는 공로패를 받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김경문 감독과 두산베어스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 관중 기록을 세운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 공로패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문 감독 등은 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2부 행사에서 야구 관계자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 당상에 오를 예정이다.